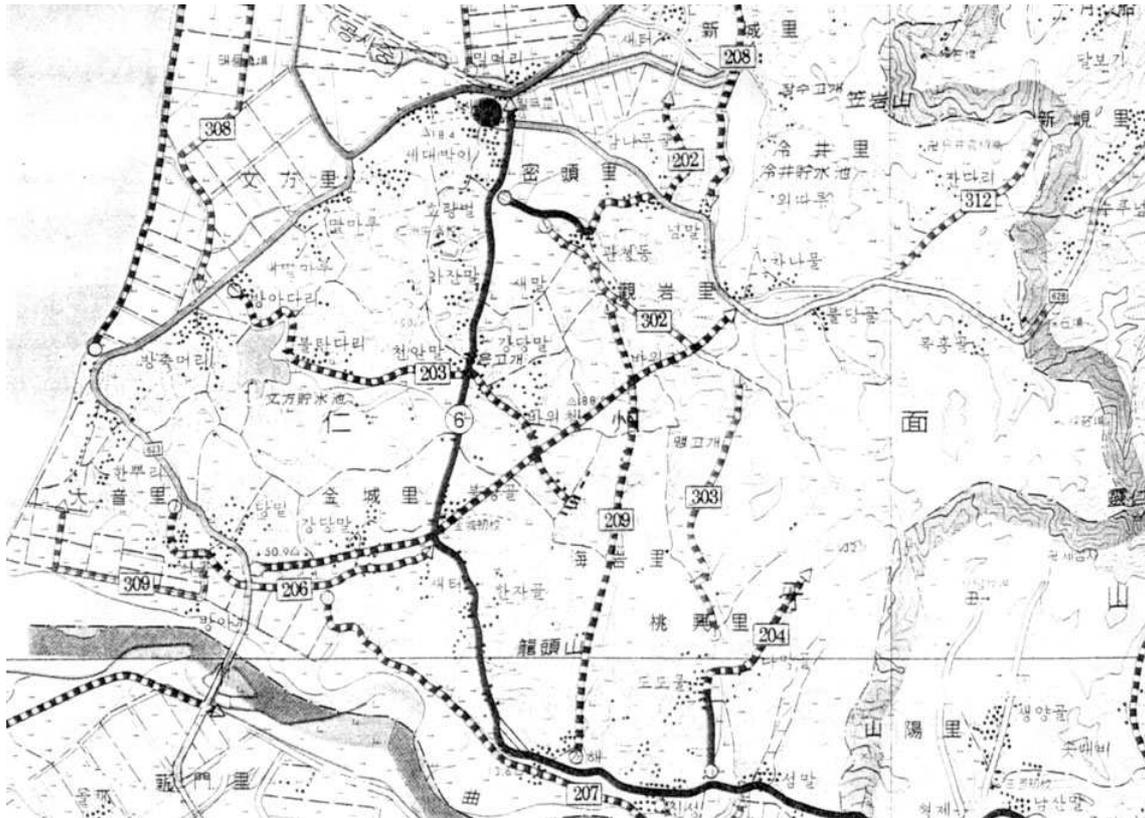


해암리·海岩里

해암리는 인주면의 한 마을로 작은 세 마을로 나뉜다 1리는 기해, 양지말, 동춘말 2리는 신성, 따비골, 3리는 한жат골이라 불린다. 총인구는 923명이며 가구수로 347가구이다. 그중 5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암리는 본래 천안군 돈의면의 지역으로 게바위가 있으므로 게바위, 변하여 기해, 게해 또는 해암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 (1895)에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성리와 대사 등을 병합하여 해암리로 고쳐서 인주면에 편입되었다.

<해암리 위치도>



⊗ 기해, 양지말, 동춘말, 신성, 따비골, 한жат골 마을

해암1리는 기해, 양지말, 동춘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해 마을은 해암리의 가장 큰 마을로 해변에 게와 비슷한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이곳에서는 1960년 대까지 기해 나루터가 있었으며 선장면 흥곶리와 연결되는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었었다. 현재는 모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암2리는 신성, 따비골마을로 통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따비 밭이 있고 주로 논 밭농사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한жат골 마을은 기해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절터였던 자리가 있으며 절도 크고 넓어서 그 절은 한 절이라 불렀다. 절이 크니 스님들이 많고 왕래객도 많았다 한다. 절터는 찾아볼 수 없으나 땅을 깊이 파면 기와장들이 나오는 곳도 있고 특히 이 마을에서는 매년 치성을 드리던 미륵불이 있었는데 이것을 옮겨 현재 대운사에 모셔 놓고 있다.

<조사당시 해암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면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따라 5~7km 정도 가다보면 북쪽으로 209번 도로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 왼쪽 사이로 기해, 양지말, 한жат골마을이 마란히 늘어져 있다. 산 때문에 길이 험할 것 같으나 교통의 발달로 밀두리 금성리 관암리와 같이 6번 국도로 이어진다.

2) 현 황

해암리1리(기해)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가 329명, 여자가 300명으로 총 629명이며 가구수는 총 267가구중 114가구가 농가이다. 해암2리(따비골)는 남자 90명, 여자 74명으로 총 164명이며 45가구중 42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암3리(한жат골) 마을은 남자 65명, 여자 65명으로 총 130명이며 총 35가구가 33가구가 농가이다.

- 인구 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기해마을	629명	329명	300명
따비골마을	164명	90명	74명
한жат골마을	130명	65명	65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	---	----	----

기해마을	100%	43%	57%
따비골마을	100%	93%	7%
한жат골마을	100%	94%	6%

- 농경지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기해마을	60ha	44ha	16ha
따비골마을	71ha	51ha	20ha
한жат골마을	41ha	33ha	8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기해마을	25	5	25	1	2	15
따비골마을	40	8	40	40	6	12
한жат골마을	30	2	30	30	5	21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기해마을	1	1	1조	1
따비골마을	1	1	1조	1
한жат골마을	1	1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기해마을	105	58	102	171	80	50	40	18	5
따비골마을	10	20	10	30	25	20	20	20	9
한жат골마을	11	9	24	18	10	20	21	10	3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어씨	홍씨	성씨	하씨	배씨	조씨	기타
기해마을	9%	1%	1%	2%	1%			1%	85%
따비골마을	27%	36%				9%	7%	1%	20%
한жат골마을	12%	12%		32%			6%		38%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해마을	57	19	21	4
따비골마을	7	5	7	8
한жат골마을	4	5	3	2

- 최고령자

1리는 이옥례씨 88세, 2리 박춘예씨 91세, 3리 추정윤씨 87세

- 호당평균소득

1리 2,000만원, 2리 2,000만원, 3리 2,000만원

3) 자연경관

해암리는 용두산 아래쪽에 형성된 마을이며 인주면 금성리, 도흥리와 경계이며 면의 경계인 곡교천이 흐르고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친안군 동의면 의 지역으로 게 바위가 있으므로 게바위, 변하여 기해, 개해 또는 해암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성산리와 대사동을 병합하여 해암리로 고쳐서 인주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해암리는 남양 홍씨가 20대째 살고 있으며 3리인 한жат골 같은 경우에는 32%가 남양홍씨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지명

기 해 : 해암리의 주마을 임. 게 바위가 변하여 기해가 되었다 함.

나루말 : 기해 앞 나룻가에 있는 마을.

동창말(동춘말) : 배산 아래에 있는 마을.

신성리 : 도흥히 섬말 쪽에 있는 마을.

양짓말 : 동창말 서쪽에 있는 마을.

텃 골 : 동창말 뒤에 있는 마을.

한жат골<한절골> : 기해 서북쪽에 있는 마을. 큰 절터가 있음.

따비골 : 통미 동쪽에 있는 마을. 따비 밭이 있음.

배 산 : 기해 뒤에 있는 산. 모양이 배와같다 함. 이산에는 형제송과 산제당이 있음.

통 미 : 기해 앞에 있는 둥그런 외딴 산.

갱 기 : 신성리 앞에 있는 들.

안 골 : 따비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게바위<기바위> : 신성리 앞에 있는 바위 모양이 게와 똑같이 생겼음.

황바위 : 한жат골 동쪽 산 기슭에 있는 바위 그위에 "평해황씨천" 다섯자를 새기었음.

상나무<향나무> : 한жат골에 있는 향나무. 둘레 두 아람.

열녀 민씨 정문 : 한жат골에 있는 홍 우기의 아내 열녀 여주 민씨의 정문.

해암리 사지 : 고려 조선초의 사지. 한절골에 있다.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사찰이었다고도 한다.

7) 전설

·한절불

인주면 해암리에 한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절터였던 자리가 있다. 절도 크고 넓어서 그 절을 한절이라 한 것 같다. 절이 크니 만치 스님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다.

하루는 아기를 못 낳은 어느 젊은 부부가 와서 주지스님 앞에서 합장을 하고 아이를 꼭 하나 갖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아기를 갖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정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부부는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온 정성을 쏟아서 드디어 3년뒤에 아기를 갖게 되어 부부에게는 암흑세계에 불빛이 비친 것처럼 기뻐했다. 아내는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서 태교에 좋다는 것을 모두 했으며 아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곧이어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남편은 좋다는 의원은 다 데려 오고 모든 약을 써 봤지만 부인의 병은 더해만 갔다. 할 수 없이 또 스님에게로 찾아가 또 한번의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원하니 아기를 낳게 한 소원의 결과로 된 일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싸늘한 몸이 된채 그 옆에는 갓난아기가 싸근 싸근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은 마치 대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더 슬퍼만 갔다.

아내의 상을 치르고난 뒤 남편은 아기에게 젖을 얻어 먹이려고 이집저집 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온 정성을 다해 키워서 아이는 여덟살이 되었는데 명석하고 영리하여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풍채도 우람해서 마치 장군처럼 커갔다. 그런데 아기는 잘자라는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결국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이는 여덟살에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되었다. 아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너무 어리다고 일을 시켜 주지를 않아 스님의 도움으로 그를 낳게 해 준 한절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지스님은 그 아이에게 너는 너의 부모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니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고 충고도 해주면서 불법등 모든 면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다.

아이는 주지스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것을 익히면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갔다. 자라는 중에 몇 년 전에 자기에게 말해준 부모님의 생명을 이어 받았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곱곰히 생각했다.

생각끝에 큰 미륵불을 세워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로 했다.

마침내 긴 세월이 걸쳐 높이 2m 15cm, 폭 55cm의 훌륭한 미륵이 완성되었다. 그 후 어느 날리에 한절은 불에 타 없어지고 미륵만이 남아 한절불에 대한 옛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형제송

아산만이 내려다 보이는 해암리 뒷산위에 있는 400여년된 해송으로 높이 16m 둘레 3.5m 수관 19m 로 나무가지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고 줄기가 괴이하게 꼬여 있는 거목인 두그루의 형제 소나무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평화롭던 조선 땅에 왜적이 침입해 왔다. 준비가 없었던 조선에 왜적이 진격해 왔고, 이 동네에도 왜 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때 이 동네에 두 젊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동네 뒷산으로 다른 동네 청년들과 함께 의병이 되어 올라갔다. 수많은 왜병이 몰려와 그들은 열심히 싸웠으나 워낙 많은 수의 적에게 전멸 당하고 말았다 전투가 끝나고 동네사람들은 모든 시신을 그 자리에 묻어 주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분명 두 그루인 소나무가 그 형제 무덤에서 자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형제의 넋이 환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형제 소나무라 불렀다. 그리고 어떤 나뭇꾼이 그 나무에 도기를 댔더니 붉은 피가 흘렀다는 설도 있다.

·기해바위

옛날 어머니만을 모시고 외롭게 살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아이는 어려서 부터 어찌나 효성이 지극하였는지 그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몸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혼자 남은 어린 딸은 그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나가며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였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자 동네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생선을 고아 드리기도 하고 썩으로 찜질을 하기도 하였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보다 못한 어린 딸은

어느 산골 암자에 산다는 스님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애의 처지에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스님은 어린 소녀의 간절한 애원을 차마 물리쳐 버릴 수가 없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방법을 알려 주었다. 어머니의 병은 바닷가에 사는 흰색의 게를 잡아다가 꼭 고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흰 게는 물위에 오르는 것이 일년에 두 번인데 날자도 부정확하고 발견한다손치더라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 소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 그래서 흰 게가 산다는 바닷가로 갔다. 마침 겨울철이라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하고 눈발이 마구 흩날리는데 그 아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다. 그러나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위틈에 쪼그리고 앉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를 기다렸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드디어 흰게가 나타나 주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 큰 몸집과 반짝이는 흰 빛이 눈이 부셔서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추위에 시달린 탓인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잡지 못하다니 그 소녀는 너무도 다급하게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 소녀도 차츰 게 모양의 바위로 변해갔다. 어머니의 병을 끝내 고쳐 드리지 못한 한으로 게 모양의 바위가 되어 언제나 슬퍼하며 달이 없는 밤이면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난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10월에 마을제사를 지낸다.

9) 종교단체

해암교회- 인주면 해암3리 목사 우창식, 종파 : 기독교 대한 감리교

대 윤 사 -인주면 해암3리 310번지 주지 장지성, 종파 : 조계종

10) 공장현황

세모산업 대표 김원직 해암200번지 생산품목 : 전기온돌

성진기업 대표 박태업 해암 108번지 생산품목 : 철선제품

11) 마을의 특성

아파트 입주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마을이 전환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서면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마을이다.